



한국블록체인협회
Korea Blockchain Association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배포일 2020년 12월 22일 보도일시 2020년 12월 22일(즉시)

담당자 김재진 사무국장

TEL 02-6412-4778~9 FAX 02-6412-477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301호

한국블록체인협회, 특급법상 ‘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’ 판단 위해 조력

- 한국블록체인협회(회장 오갑수)는 22일,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‘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특급법)’ 상 ‘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’를 제출 받고 있다고 밝혔다.
- ‘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’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그 사례를 종합하여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, 12월말 배포 예정인 ‘특급법 시행령 매뉴얼’ 등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,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체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.
- 특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‘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, 교환, 이전, 보관·관리, 중개·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▲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, ▲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, ▲ 가상자산 이전행위, ▲ 보관·관리, ▲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·알선, ▲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지난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(FIU)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▲ 가상자산 거래업자 ▲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▲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고 있다.
- 협회 관계자는 “이번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종합은 그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.”라고 밝혔다.
- 협회는 특급법 개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관련 당국 및 입법 기관 등에 전달해 왔으며,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은 물론 입법 예고된 후에도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해왔다.